



## K-식품 '맛있는 특허' 10년간 4.6만건 신청...건강기능식품 '대세'

- 건강기능식품, 출원 비중(17.5%) 및 성장세(연 14.27% ↑) 모두 1위 -
- 제빵(연 5.99% ↑) 및 K-소스(연 4.82% ↑) 출원도 눈에 띄는 성장세 -
- 일반 기술 출원과 달리 개인·중소기업 출원이 72.4%로 다수 차지 -

- # (건강기능식품) 한국식품연구원은 제주도에 서식하는 해조류 '넙패'를 활용, 우울증 및 스트레스 개선 효능을 규명하고 식품 특허를 받았다.
- # (제빵) 중소기업 A社は 쌀 도정시 부산물인 쌀겨와 콩 단백질을 활용하여 밀가루가 없는 식물성 카스테라 제조기술로 특허를 확보하였다.
- # (K-소스) 농업회사법인 B社は 고춧가루 대신 파프리카와 누룩을 사용하여 외국인용 고추장 소스 제조기술을 특허 받았다.

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는 최근 10년간('16~'25년) 식품분야 특허가 총 46,436건 출원되었고, 특히 최근 3년간 매년 5,000건 이상이 출원되며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. 이는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K-식품 열풍이 특허출원에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.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출원 비중(17.5%)과 성장세(연평균 14.27% ↑) 모두 1위를 기록해,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.

### < 건강기능식품, 출원 비중(17.5%)과 성장세(연평균 14.27% ↑) 모두 1위 >

건강기능식품은 최근 10년간 총 8,126건이 출원되어 식품분야 전체 출원의 17.5%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. 또한 성장추이로 보면 '16년 351건에서 '25년 1,166건으로 3.3배 늘었으며 연평균 14.27%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. [붙임-①]

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단백질·비타민과 같은 영양소 공급을 넘어 항산화, 혈액순환 개선, 혈당조절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갖는 건강기능식품 출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. '항산화/면역력 증진' 기술이 2,113건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 '소화 건강'(729건), '인지기능/수면개선'(467건)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. [붙임-②]

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성하는 주요 소재별로 보면, 식물성 원료(3,634건)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프로바이오틱스(642건)가 그 뒤를 이었다. 특히 식물성 원료 중에서 인삼·홍삼이 426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는데, 홍삼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\*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 동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. [붙임-③]

\* '24년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매출액 1위 : 홍삼 40,131억원, 24년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수출액 1위 : 홍삼 821억원(출처 :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, 식품안전정보원)

< 제빵(연 5.99%↑) 및 K-소스(연 4.82%↑), 연평균 증가율 각각 2, 3위 >

제빵과 'K-소스'로 대표되는 조미식품 분야의 성장도 눈에 띈다. 제빵 특허 출원은 '16년 237건에서 '25년 400건으로 연평균 5.99%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빵의 인기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. 칼로리를 줄인 무설탕 빵, 글루텐이 없는 빵 등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기 위한 기술이 출원되고 있다. [붙임-1]

또한 소스류(예: 떡볶이 소스)는 '16년 311건에서 '25년 475건으로, 연평균 4.82%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K-식품의 맛을 뒷받침하고 있다. 특히 고추장, 된장 등 전통 장류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의 기호에 맞춘 맞춤형 소스 및 조미기술이 출원되는 것으로 파악된다. 이러한 기술적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최근 소스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\*를 경신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 [붙임-1]

\* '25년 소스류 수출액(증가율) : 411.9백만 달러(4.6%↑)(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)

< 일반 기술 출원과 달리 개인·중소기업 출원이 72.4%로 다수 차지 >

식품분야 출원을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, 개인(18,032건, 38.8%), 중소기업(15,606건, 33.6%)이 전체의 72.4%를 차지하였고, 이어서 대학/연구기관(5,448건, 11.7%), 외국(2,913건, 6.3%), 대기업(1,411건, 3.0%) 순으로 나타났다. 일반적으로 기업 중심으로 특허출원\*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교하면 식품 특허출원에서는 개인의 비중이 두드러진다. 이는 식품분야가 비교적 접근이 쉽고, 조리법 등 일상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한 출원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. [붙임-3]

\* 출원인 유형별 전체 특허출원 비중('25년) : 중소기업 25.4% > 대기업 22.9% > 외국 19.7% > 개인 13.8% > 대학교 8.4% > 공공기관 4.8% 순

반면, 다출원인은 공공기관인 농촌진흥청(569건)과 한국식품연구원(503건)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고, 대기업인 씨제이제일제당(397건)이 그 뒤를 이었다. 출원인 유형별 출원 건수는 개인·중소기업이 높지만, 체계적인 연구개발에 기반한 대규모 기술 확보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. [붙임-4]

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“K-식품이 세계인의 입맛과 시장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특허출원 또한 늘고 있다”면서 “우리 국민과 기업의 ‘맛있는 아이디어’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지식재산권으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: 식품분야 특허출원 동향

담당부서	특허심사기획국	책임자	과 장	강전관 (042-481-5625)
	식품생물자원심사과	담당자	사무관	하혜경 (042-481-8450)



▶ 최근 10년간 식품분야 연도별, 품목별 국내 특허출원 건수

(단위: 건, %)

기술분야 \ 연도	'16	'17	'18	'19	'20	'21	'22	'23	'24	'25	합계	점유율	(연평균 증감율)
건강기능식품	351	642	624	529	629	952	1,014	1,183	1,036	1,166	8,126	17.50	( 14.27)
식육가공식품	388	474	347	452	452	442	459	503	509	514	4,540	9.78	( 3.17)
음료류(커피, 차류 포함)	504	414	391	401	394	484	435	439	443	379	4,284	9.23	( ∇3.12)
곡류가공식품	352	339	404	376	341	350	392	380	412	302	3,648	7.86	( ∇1.69)
소스류, 향신료 가공품	311	323	302	271	351	372	378	453	392	475	3,628	7.81	( 4.82)
과채가공식품	328	376	363	349	311	314	320	348	336	297	3,342	7.20	( ∇1.10)
빵류	237	228	182	290	178	267	258	296	420	400	2,756	5.94	( 5.99)
수산가공식품	261	249	260	279	263	298	285	305	280	259	2,739	5.90	( ∇0.09)
과자류	216	271	250	200	234	214	201	228	226	230	2,270	4.89	( 0.70)
주류	163	190	153	157	164	156	140	168	170	170	1,631	3.51	( 0.47)
콩류가공식품	157	130	117	144	161	182	141	135	143	109	1,419	3.06	( ∇3.97)
잼류	87	70	74	77	80	120	99	115	95	93	910	1.96	( 0.74)
유가공식품	110	99	76	86	68	79	87	96	80	84	865	1.86	( ∇2.95)
식용유지류	29	49	37	54	49	43	32	53	69	44	459	0.99	( 4.74)
알가공식품	30	15	11	21	18	22	22	22	18	13	192	0.41	( ∇8.87)
기타식품 및 식품제조장치	942	526	499	488	589	463	528	534	537	521	5,627	12.12	( ∇6.37)
합 계	4,466	4,395	4,090	4,174	4,282	4,758	4,791	5,258	5,166	5,056	46,436	100.0	( 1.39)

▶ 최근 10년간 건강기능식품 주요 기능 및 소재(TOP5)

(단위: 건)

순위	기능	출원건수	순위	소재	출원건수	순위	식물성 원료/약용식물	출원건수
1	항산화/면역	2,113	1	식물성 원료/약용식물	3,634	1	인삼/홍삼류	426
2	소화 건강	729	2	프로바이오틱스	642	2	콩류	150
3	인지기능/수면개선	467	3	천연물 유래 화합물/비타민/미네랄	497	3	새싹 채소	74
4	간 건강	398	4	버섯류	147	4	생강	58
5	체지방/체중 감소	396	5	동물성 원료/식용곤충	139	5	마늘	57

\* 건강기능식품 출원건수는 국제특허분류(IPC) 기준, A23L 33/00 주분류를 대상으로 함

◀ 식품분야 국내 특허 출원인 동향

(단위: 건, %)

출원인 구분 \ 연도	'16	'17	'18	'19	'20	'21	'22	'23	'24	'25	합계	점유율
개인	1,962	1,836	1,765	1,862	1,740	1,743	1,714	1,830	1,745	1,835	18,032	38.8%
중소기업	1,229	1,215	1,132	1,270	1,442	1,769	1,828	2,048	2,066	1,607	15,606	33.6%
중견기업	80	84	103	75	88	107	96	87	93	110	923	2.0%
대기업	193	248	146	114	140	129	109	101	112	119	1,411	3.0%
대학/연구기관	599	597	487	410	462	542	547	647	655	502	5,448	11.7%
정부/지자체	136	111	123	108	127	128	119	139	100	81	1,172	2.5%
국내법인	43	47	54	54	48	54	34	33	43	521	931	2.0%
외국	224	257	280	281	235	286	344	373	352	281	2,913	6.3%
합 계	4,466	4,395	4,090	4,174	4,282	4,758	4,791	5,258	5,166	5,056	46,436	100.0%

## ▲ 식품분야 주요 출원인 현황(TOP5)

(단위: 건)

<식품 전체 분야 주요 출원인>

순위	출원인	출원건수
1	농촌진흥청	569
2	한국식품연구원	503
3	씨제이제일제당(주)	397
4	한국한의학연구원	275
5	김00	270

<건강기능식품 분야 주요 출원인>

순위	출원인	출원건수
1	한국식품연구원	277
2	한국한의학연구원	267
3	농촌진흥청장	212
4	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	80
5	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	73

\* 건강기능식품 출원건수는 국제특허분류(IPC) 기준, A23L 33/00 주분류를 대상으로 함